

**건물일체형 태양광 외장재, LED 마스크 등  
유망 제품의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한다**

**- 탄소중립, 국민편의 및 안전 등 8개 유망 제품 선정,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-**

□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상훈)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 외장재, LED 마스크 등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제품 8종의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□ 이 사업은 시험인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, 시험방법과 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분야의 기업에게 국제적 통용성이 있는 공인성적서\*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.

\* 공인성적서는 미국, 일본, 베트남 등 전세계 104개국에서 통용되며 한국인정기구(KOLAS,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)가 인정한 공인기관이 발급함.  
국가기술표준원이 KOLAS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역량이 있음을 공인함.

□ 올해는 84개 수요 과제 가운데 시급성과 유망성,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분야 8개 과제를 선정\*했다.

\* 기술수요조사('20.12.16~'21.01.04)를 통해 외부로부터 84건의 과제 발굴 → 기획위원회(2~3월) 및 사업심의회(3.31)를 거쳐 공고 대상 과제 8개 선정

□ 금번에 선정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과제는 탄소중립, 코로나19, 국민편의 및 안전 제고 등 크게 3가지 분야에 집중됐다.

○ (탄소중립)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수소경제 확산에 필요한 시험

서비스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 
기후변화 대응 기조에 발맞추며,

- \* ❶건물일체형 태양광 외장재 안전성 평가, ❷수소 등 가스용 밸브 성능시험,  
❸지능형 전력기기 상호호환성 검증 등

- (코로나19)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살균 및 바이러스 검출 관련 제품들의 안전·성능 평가 시험서비스를 개발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.

- \* ❶살균기능이 포함된 LED 조명 안전·성능 평가, ❷체외진단용 검출기기 성능평가

- (국민편의 및 안전) LED마스크, 임플란트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만 공인된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제품에 대해 공신력 있는 평가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.

- \* ❶가정용미용기기(LED마스크, 두피관리기, 눈마사지기, 플라즈마 미용기기) 안전성 시험절차 및 환경 구축, ❷귀금속 합금의 비파괴검사(X선 형광 분광 분석) 시험서비스, ❸치과용 임플란트의 피로성능 시험인증 서비스

- 이와 함께, 국토원은 시험인증 서비스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한 시험인증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'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및 기초 인력양성'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.

- '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'를 통해 국내외 시험인증기관·기업의 사업 현황과 추이를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하고,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.

- 이와 더불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 50명을 선발해 시험인증 관련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'시험인증산업 기초인력양성\*' 과제도 동시에 진행한다.

\* '15년~'20년 본 과제를 통해 기초인력 290명이 국내 시험인증기관에 취업

- 국표원은 4.14(수)부터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([www.kats.go.kr](http://www.kats.go.kr))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([www.keit.re.kr](http://www.keit.re.kr))에 지원과제를 공고하며, 5.17(월)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, 6월 중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.
-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“미래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함으로써, ❶소비자는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❷혁신적인 제품이 조기에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❸국내 시험인증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석삼조의 사업”이라면서,
  - “우리 산업계가 시장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